



※ 한국원자력산업협회는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원전해체, 품질·안전, 용접·재료, 방사선, 프로젝트관리 등 5개 분야의 '재직자·퇴직자 경력전환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총 150명이 수료하였다(중복 수료자 포함). 이에 본지에서는 교육 수료생의 수강후기 3편을 게재하였다.

저는 지금 경력전환 중입니다 - 품질·안전 분야 중심으로-



이창목

세아에스에이 팀장/전 한전 처장

- 2021 경력전환교육 원전해체 분야 수료
- 2021 경력전환교육 품질·안전 분야 수료

따사로운 햇살이 사무실 창문에 눈부시게 부서지는 어느 화사한 2021년의 3월 봄날, 퇴사를 한 달여 앞둔 저는 심드렁한 심정으로 이메일을 열어 보았습니다. 메일함을 뒤진다고 퇴직 후의 삶이 새롭게 열릴 것 같지는 않았지만 회사 메일로 받아보는 얼마 남지 않은 기회를 놓치지자는 말자는 심정으로 수신함을 주욱 훑어보고 있는데, 늘 익숙한 제목으로 들어오던 한국원자력산업협회(협회) 메일에서 생소한 제목이 눈에 띄었습니다.

「원자력생태계 지원사업 - 퇴직자·재직자 경력전환 지원사업」 퇴직자·재직자 경력전환 지원 경력인력 모집 공고

원자력산업 퇴직자, 재직자의 미래 유망분야 재취업 및 이직을 위한 경력전환 지원 사업에서 경력인력 여러분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어라! 재취업 및 이직이면 나도 되나? 어디 보자, 무슨 분야가 있나? 교육분야가 품질·안전,

프로젝트관리, 원전해체, 용접·재료, 방사선, 이렇게 5개 분야네. 프로젝트관리는 여태까지 주로 해 온 업무이어서 새삼 경력전환이라고 할 것도 없고, 용접·재료는 대학교 실습실 이후로 접해 본 적이 없으니 해도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방사선? 면허를 따야 할 것 같은데 이 나이에 또 시험을 쳐? 원전해체가 좀 구미에 당기긴 한데 당장 써 먹을 데가 있을까 싶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원자력 생태계에서 후배들이 새로운 먹거리로 생각하는 것 같은데 괜히 알짱거릴 필요가 있을까? 그럼 품질·안전은? 요즘 안전은 때 아닌 이슈로 떠오르고 있으니 인 증심사원이 될 수 있다면 괜찮겠네. 그래, 퇴사 후에 일주일짜리 교육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으면 시간 보내기 좋겠네. 그럼 신청! 2개 분야에 지원 가능하니 1순위로 품질·안전, 2순위로 원전해체로 정해야겠다.

퇴사 후 한 달 치 실업급여를 받고 권태로운

〈표 1〉 품질·안전 기본과정 교육내용

순서	분류	내용
1	인증심사원 과정의 이해	인증심사원 자격 요건, 심사관리시스템 요구사항, 심사의 종류, 접근방법
2	심사원 자격 요건	인증심사원 등록 요건, 등록 절차, 등록 제출서류, 자격요구사항, 갱신기준
3	용어와 정의	
4	심사원칙	성실성, 공정한 보고, 독립성, 증거 기반 접근, 리스크 기반 접근
5	심사프로그램 관리	심사프로그램의 범위, PDCA Cycle, 목표의 수립, 리스크/기회 결정, 심사팀원 선정, 현장방문 계획
6	심사수행	심사의 목적, 심사 수행 가능성 결정, 문서 검토, 리스크 기반 계획 수립, 심사계획서 작성, 심사팀 업무 배정, 시작회의, 정보수집 및 검증, 인터뷰, 심사발견사항, 부적합사항, 부적합보고서, 종료회의, 보고서 작성, 후속조치
7	심사원 역량/적격성 및 평가	심사원의 개인적 태도, 기반 지식 및 스킬, 심사원 평가방법
8	인증 구성체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정/인증기관 체계

퇴직생활 시리즈를 얼굴책에 올리기 시작할 즈음인 2021년 5월 초, ISO 9001 인증심사원 양성과정(SM모듈)에 참석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인데도 집합 교육을 한다는 소식에 협회에 첫 번째 감사의 마음을 보냈습니다. 일주일이나 출퇴근을 할 수 있다니... 두 번째 감사는 교육 첫날 아침에 바로 터져 나왔습니다. 깔끔한 강의실, 방역을 위한 배려 깊은 인원 및 좌석 배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일찍 나와서 교육준비 상태를 점검하고 교육 시작과 함께 경력전환교육의 취지와 목적을 빠짐없이 홍보하고, 5일간 계속된 교육시간 동안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협회 담당 직원들의 세심한 노력 덕분에 결코 쉽지 않은 교육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교육과정은 2개의 모듈로 구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2일간의 기본과정이었으며, 두 번째는 3일간의 SM과정이었습니다. 기본과정은

ISO19011:2018을 기반으로 경영시스템 인증 심사원의 기초를 다지는 과정이며, SM과정은 ISO 45001:2018을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 인증 요건을 습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과정별 교육내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본과정은 〈표 1〉과 같습니다.

교육은 기본 이론에 대한 강의, 사례 연구, 조별 실습 및 문서 작성 실습 등 다채롭게 구성되어 교육생들의 흥미를 유발하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교육생들을 줄 수 없게 한 것은 마지막 시간에 기본 모듈에 대한 시험평가를 치러서 합격해야 'Certificate of Achievement'가 발급되며 이 증서가 있어야 심사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의에서 늘 그렇듯이 강의 시간에 강사분께서 시험평가에 나올 만한 내용을 수시로 강조해 주니 어찌 즐고 앉아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기본과정 교육 내용 중에서 특히 관심을 끈 것은



〈표 2〉 품질·안전 SM과정 (ISO 45001:2018) 과정 교육내용

순서	분류	내용
1	제정 배경 및 핵심구조	제정 배경 및 목적, P-D-C-A 모델, High Level Structure, Risk Base Thinking, Process Approach
2	용어의 정의	최고경영자(top management), 근로자(worker), 계약자(contractor), 이해관계자(interested party)/이해당사자(stakeholder)
3	산업안전보건법 이해 및 적용	법의 체계 및 입법 절차, 중대재해기업처벌 이해
4	ISO 45001:2018 요구사항 이해	조직 상황, 리더십, 리스크와 기회, 안전보건 목표, 성과평가, 개선
5	안전보건 심사원 적격성 요구사항 이해	

심사원이 갖추어야 할 전문가적 태도였는데 이를 배우면서 저 자신을 스스로 평가해 보았습니다.

나는 개방적인가? 외교적인가?

나는 관찰력과 통찰력, 결단력이 있는가?

나는 개선 수용력과 문화적 민감성을 지녔는가?

교육이 끝난 며칠 후 날라든 이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PCAA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기본 모듈)에 대한 관찰평가 및 시험평가에 “합격”하였음을 기쁜 마음으로 통보드립니다.

SM과정은 기본과정보다 교육기간이 하루 더 길었지만 그 내용이 어려울뿐더러 학습량이 훨씬 방대하여 3일간의 교육은 그야말로 고난의 행군이었습니다. 중간 중간에 사례 연구, 조별 실습 및 문서 작성 실습 등이 있었지만 주어진 시간은 빡빡하고 강도는 거의 압박 수준이어서 즐길 틈 없이 강사의 진도를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더군다나 산업안전보건법 같은 법률 얘기는 들어도 아는지 모르는지, 알고 넘어가는 것인지 판단할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이러다 보니 시험평가에 대한 부담에 진도가 나가면 나갈수록 어깨는 쳐져 갔습니다. 그렇게 이틀하고도 반이 지나고 나서 교육내용을 되짚어 보니 아니 이게

웬일일까요? 상세한 요구사항까지는 몰라도 안전보건관리의 큰 윤곽이 정리되는 게 아니겠어요? 마지막 시험평가 시간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순간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명 들은 것 같은데 찾을 수는 없고(시험평가는 오픈북입니다). 앞에서부터 풀다가 안 되니 뒤에서부터 풀고 그도 막히면 다시 앞으로 갔다가 하면서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쓰지 않는 것보다는 뭐라도 쓰는 게 낫다는 식으로 학창 시절 시험 치던 편법까지 총동원하여 칸을 매워 나갔습니다. 시험 문제는 서술형이 많아서 더더욱 그랬습니다.

그렇게 교육이 끝난 며칠 후 마침내 날라든 이메일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PCAA 경영시스템 인증심사원 양성과정(SM 모듈)에 대한 관찰평가 및 시험평가에 “합격”하였음을 기쁜 마음으로 통보드립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니 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교육을 시행했던 기관에 문의하니 우선 심사원보 등록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심사원보 등록은 ‘기본과정’과 ‘SM과정’의 ‘Certificate of Achievement’와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개인자격인증평가원(PCAA)’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심사절차를 거



원자력 품질 및 안전 교육의 수료생 및 관계자이다.

쳐 'PCAA심사원보 등록완료'통지를 받았으며 자격번호도 부여받았습니다.

심사원보가 심사원으로 되려면 심사 현장 참관 등의 요건이 필요하며 이를 충족하려면 인증기관에 심사원보 참관을 신청해야 합니다. 일련의 절차를 다 마치고 나니 어느덧 9월 초였고, 이때 인증기관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이메일이 왔습니다.

현재 심사원보 대기자가 많아 내년도 참관으로 들어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경력전환이 이리 쉽지만은 않구나! 그나마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인증기관에서 추가로 받아 다소 위안이 되었습니다.

심사원보 등록분들에 한하여 대면 세미나를 검토 중이며 10월 중으로 최종 결정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위드코로나 단계가 진행되기를 바라면서요.) 가급적이면 대면 방법을 고려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방법도 고려될 수 있음을 참고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경력전환 교육은 어려운 상황을 맞고 있는 원자력계 종사자들에게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볼 좋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육분야도 협회에서 고심하여 선정한 흔적이 역력하며 아주 실용적인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교육 이수만으로 경력 전환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은 경력전환을 위한 출발점일 뿐이며, 교육 이후의 사후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물론 협회에서도 이 점을 알고 경력인력 DB 등록부터 재취업 지원까지의 프로그램을 편성해 두었습니다만, 이를 실현하기에는 (위의 심사원보 사례에서도 보여드린 바와 같이) 관련 기업 및 현장 여건이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하지만 어찌 보면 이 부분은 원자력계 종사자 각 개인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글을 쓸 기회를 주신 협회에 세 번째 감사를 드립니다. **KIIF**